

난중일기

이진화

가끔은 하늘을 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난중일기를 읽은 후 가장 먼저 실천하고, 또 느낀 점이였다. 말을 떼고,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이순신 장군을 모를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혹은 다른나라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하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용맹한 장군이었으며 성품까지도 뛰어나 현대에서 위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런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단순하게 전쟁 중 쓴 일기라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전쟁 중에 쓰여진 일기는 많고도 많을 테니까 말이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다른 전쟁 중에 쓰여진 일기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난(亂)중에 쓴 일기라 하여 난중일기라 이름이 붙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왜(倭)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시던 때에 쓰여진 일기이다.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 중 일반병사도 아닌 지휘관급의 장관이 직접 쓴 일기는 그것이 극히 드물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총 7년동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쓴 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에 관한 꽤나 자세한 이야기도 있지만 의외의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쓰여 있다.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싶다. 다른 것은 없이 오롯하게 조국 하나만을 위하여 위험한 전장에 뛰어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몸바쳐 뛰어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솔직히 겁이 많은 나로서는 엄두도 못낼 일일 것 같았다. 일기를 보면 언제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이 담긴 것이 아니다. 그 날의 날씨부터 시작해 부모님의 안부까지,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담겨 있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혹은 맑았다와 같은 글을 쓰며 하늘을 올려다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전쟁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맑기도 하고 비도 내리는 날씨를 보며 가족들을 그렸을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니 무언가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하루하루 펼쳐진다면 가족들과 떨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애절할

까 싶었다. 이순신 장군이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대단하신 위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인 내 동생도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모두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그런 대단한 업적이 아닌 그런 사소하지만 인간적인 문장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난중일기를 읽으면 전쟁에 대한 것이 지극히 많이 나오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비슷하게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특히나 그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일기의 어느 부분에서 보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내 입장에서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과 떨어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십대 중후반의 청소년들 중 자발적으로 부모님에게 얹매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눈 밖에서 생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청소년들은 생각 외로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십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오직 귀찮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우리는 2박 3일로 가는 수련회 하나에도 좋아하니까. 하지만 난중일기를 쓰신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걸고 볼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모님과 떨어져 몇 년을 지내야 한다는 상황이 닥쳐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나였으면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용기는 못 냈을 것 같았다. 오직 이순신 장군만 꼽는 것이 아니라 의무든 자원이든 뭐든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 점이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와 현대는 차이점이 많고 아직 어린 우리나라의 십대들과 과거에 활약하신 장군들과는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단정지어 해석한 면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만 오직 부모님이라는 소재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오직 업적 하나만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옛사람보다 모르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물론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효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인들은 모든 것에 치여 감정이 메말라 본인조차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내가 편히 앉아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것도 모두 부모님의 덕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러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상황은 현대인들보다 좋지 않았으며 하루하루가 극적인 상황이었을 것이지만 오직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님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오늘의 날씨가 맑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떠올릴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먹먹하게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오늘은 맑다는 말을 일기에 적으며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